



교육의 관점에서 읽는 칼빈의 교회론

양 금희(장로회 신학대학 기독교 교육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칼빈은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육적으로도 개혁 교회의 뿌리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개혁가이다. 따라서 그가 어떠한 교회론을 구상하였는지, 그리고 그의 교회론 안에서 교육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은 단순히 칼빈 개인의 견해를 넘어서서 개혁 교회의 교회 이해와 교회 교육에 방향을 제시하는 좌표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개혁 교회의 교육이 언제나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시의 적절하게 대처하면서도, 이를 동시에 개혁 교회의 전통에 비추어 반성해 나아가야 한다는 두 측면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Osmar의 말이 옳다면¹⁾, 우리는 칼빈이 제시하는 교회 교육 개념에 언제나 새롭게 접목하고, 그를 재해석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교육 이해는 지금까지 그다지 많이 연구의 대상이 되어 오지 못했다. 그것은 아마도 칼빈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주제를 따로 선택하여 어떤 저술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에 크게 기인 할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교육적 저술을 남긴 루터나 멜랑히톤과는 달리 교육적 관련성이 비교적 적은 개혁자처럼 비춰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Buschbeck의 지적처럼 칼빈이 특정한 기독교 교육적 저술은 남기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저술 곳곳에서 우리는 그의 교육적 안목을 읽을 수 있다.²⁾ 칼빈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비유하여 설명하였고(discipuli Dei),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인도를 하나님의 교육(Paedagogia Dei)³⁾으로 보았으며, 성령을, 또 때때로 성경을 ‘교사’(magistro)⁴⁾로 칭하기도 하였고, 교회를 학교(Schola)⁵⁾로 비유하기도 하였다. 그의 대표적 저술인 「Institutio」도 ‘교육’을 지칭하는 대표적 라틴어 단어이고, 그것이 처음 쓰여질 때 요리 문답, 즉 기독교인으로서 최소한 알아야 할 것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도 주목 할 일이다.

이와 같은 교육적 표현들을 가장 쉽게 접하게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아마도 칼빈의 ‘교회론’ 부분일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칼빈이 교회의 필요성에서부터 시작하여 교회의 모든 삶의 표현들 속에서 양육의 과제를 보고 있고, 이를 교회론적 서술에 반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본고는 칼빈의 교회론을 ‘교육의 관점에서 읽기’를 시도해 보려한다. 본고는 칼빈의 교회론을 요약하거나, 혹은 신학의 영역에서 흔히 다루어져 왔던 교회론적 테마들(예를 들어 성찬론, 직분론, 교회의 표지, 참 교회, 거짓 교회 등)을 다시 정리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칼빈의 교회론에 나타나는 교육 관련적 쟁점들을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양육하는 교회’의 개념과 그의 교회론 안에 차지하고 있는 교육의 의미를 기독교 교육학자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고자 한다.

칼빈의 교회론을 읽을 수 있는 텍스트들은 다음과 같다.⁶⁾ 먼저 1536년에 쓰인 강요 초판을 들 수 있다. 그곳에서 그는 특별히 ‘교회론’이라는 항목을 따로 정하여 쓰지는 않았으나, 사도 신경 해설의 네 번째 부분 ‘거룩한 공 교회를 믿사오며’의 해설 부분과, V장의 “거짓 성례론”(da falsis

1) R. Osmar, A Tdachable Spirit: recovering the teaching office in the church, 19980. p. 21.

2) Bernhard Buschbeck, "Johannes Calvin(1509~1564)", Hennig Schroer/ Dietrich Zilleben(hrsg.), Klassiker der Religionspädagogik, Frankfurt, 1989. p. 37.

3) CR, 37, 27(사 40,28); CR, 49, 348(고전 3,3); 참조, R. Hedtker, Erziehung 역초 die Kirche bei Calvin, Heidelberg, 1969, p. 29f.

4) Institutio, I, 6, 1.

5) Institutio, IV, 1, 1.

6) U. Kuhn, Kirche, Gutersloh, 1990, p. 58



sacramentis) 부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다룬 장에서 교회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1539년 판(2판) 1543년의 (3판)에 출판된 「기독교 강요」에서는 보다 발전된 형태로 교회론이 정리되어 사도 신조 해설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다가 1559년 라틴어 최종판에서 그의 교회론은 성례전론과 함께 제4권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는 그가 1536년 제네바의 시의회에 제출한 “교회법”(Ordonnances ecclesiastiques)과, 2차 제네바 목회 시기(1541~1564)중에 시의회에 제출한 “교회 규범”(Les Ordonnances ecclesiastiques, 1541)을 들 수 있다.⁷⁾ 본 고에서는 칼빈이 그의 1,2차에 걸친 제네바 목회 시기를 경험하면서 목회적 현실과의 관련성 속에서 교회론을 조직적으로 재정립하고 있는 그의 「기독교 강요, 1559」 최종판을 주요 텍스트로 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II. 칼빈의 교회 정의에 나타난 ‘양육’ Motive

칼빈은 그의 교회론에 해당하는 기독교 강요 IV권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부르시고, 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시는 외적인 수단들과 도움들에 관하여”라고 붙이고 있다. 이것은 제목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 그의 교회에 대한 정의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외적 수단과 도움’이 곧 교회라는 말이다. 이와 같이 제목은 물론 그의 강요 전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의 신학적 인간 이해와의 연결 선상에서 보아야 한다.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Gemeinschaft mit Christus)이라는 단어를 신자들이 평생에 걸친 성화의 과정에서 이룩해야 할 과제로 보았다. 그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인바 되어, 옛 사람이 죽고(mortification),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는 순간부터(vivification)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였다.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을 받는 우리는 그러나 중생의 순간에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일회적으로 이루는 것은 아니다. 칼빈은 그 순간에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지만 그 회복의 과정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옛 아담의 모습을 죽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하는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이다.⁹⁾

칼빈은 교회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초대하고, 그 연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세워진 기관이라고 하였다. 이미 이러한 제목으로부터 우리는 칼빈이 생각했던 교회의 필요성과 목적을 엿볼 수 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초대함으로써 신자들을 키우고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다. 이형기 교수는 칼빈의 직제론을 루터의 그것과 비교하는 논문에서 “칼빈의 교회론에서는 이미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부터 루터와는 다르게 ‘성화’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다.¹⁰⁾ 이것은 교회사에게는 ‘성화’의 강조로 비춰지지만, 기독교 교육학자에게는 ‘교육’ 혹은 ‘양육’의 강조로 비춰진다. 기독교 교육은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하고, 계속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는 행위’이다.¹¹⁾ 계속

7) 참조, O. Weber, "Calvins Lehre von der Kirche",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Neukirchen 1968, p. 32; A. Ganoczy, Ecclesia ministrans. Dienende Kirche und Kirchlicher Dienst bei Calvin, Freiburg, 1968, p. 190; 이오갑, 교회론, 한국칼빈학회편, 「칼빈의 신학과 목회」, 231쪽 이하; 황정욱, 칼빈의 목회, 「칼빈의 신학과 목회」, 253쪽 이하; 이형기, 직제론: 루터와 관련하여, 「칼빈의 신학과 목회」, 273쪽 이하.

8) Institution, III, 3, 9.

9) Institution, III, 6, 5; 참조, 프랑수아 방텔,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서울, 1999, 279쪽 이하.

10) 이형기, 직제론: 루터와 관련하여, 한국칼빈학회역, 「칼빈 신학과 목회」, 대한 기독교서회, 1999, 292쪽; 참조, 이형기, 「장로교의 장로직과 직제론」,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8. 103쪽

11) U. Hemmel, Einführung in die Religionspädagogik,



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유지시킴으로써 신자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과제는 기독교 교육의 핵심적인 과제인 것이다. 그렇게 볼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돕는 칼빈의 교회는 양육을 그 핵심으로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개념은 그가 내리는 교회에 관한 정의 후반부,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돕기 위한 ‘외적 수단이요 도움’이라는 표현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교회가 외적 수단과 도움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외적인 수단의 의미를 칼빈을 IV권 1장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

“앞 장에서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

시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됨을 살피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고 태만하고, 또한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생겨 나게 하고 또한 궁극적 목적까지 도달케 하기 위하여는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 님께서 우리의 약함(infirmity)을 돕기 위하여 이러한 외적 수단을 더하셨다;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그는 이 보물을 교회에게 맡기셨다. 그는 ‘목자’와 ‘교사’를 세우셔서(엡4,11) 그들의 입을 통하여 그 백성을 가르키신다. 또한 그는 성례전을 제정하셔서 성례에 참가한 우리의 신앙의 자라고 강화되게 하는데 유익한 보조 수단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직 천사들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 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능력과 눈 높이에 맞게 자신을 조절하시어서 (accommodiert)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머나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셨다.” (Institution IV.1, 1.)

칼빈은 인간을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사는 한 완전하지 못한 연약하고 미숙한 존재로 보고 있다. 그래서 “infirmity”(연약함, 부족함)는 그가 신자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이다. 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완전한 존재로 되는 신앙의 궁극적 목적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하여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연약한 인간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외적 수단을 세우셨다는 것이다. 칼빈은 왜 ‘외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지, 내적인 수단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을 주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적으로 인간에게 직접 가리킬 수 있으나, 육체를 입고 사는 감각적이고 약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드러난 수단, 즉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가리키게 하는 것, 성례라는 구체적인 수단을 통하여 신앙의 성장을 돕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그는 뒷부분의 성만찬 설명 부분에서도 “그리스도와 신자가 은밀하게 연합된다는 이 신비는 본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능력에 맞게 볼 수 있는 표징을 주셔서 그 신비를 보여주신다.” 고 하였다.¹²⁾

교회란 연약함과 부족함을 속성으로 하는 신자들을 계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수단인데, 인간이 육체 안에 갇혀서 볼 수 없는 부분을 인간의 눈 높이에 맞추어서(accommodation)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외적 통로를 사용하여 돕는 수단이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일련의 교육적 motive를 보게 된다. 교육의 핵심은 ‘미성숙한 인간을 도와 성숙으로 이끄는 행위’이며, 이를 위하여 미성숙한 학습자의 발달의 단계와 수준에 맞도록 조절하여 접근한다는 것은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이자 원리이다. 교회가 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신앙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미성숙한 신자들의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눈 높이 교육 기관이라는 정의는 칼빈의 교회 이해가 그 자체로 교육적 motive 위에 세워진 정의라고 하는 점을 시사한다. 그의 교회 안에 ‘양육’은 주변적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칼빈은 연이어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12) Institution, IV, 17.1.



되는 사람에게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야 하며,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다 :

“교회에 대하여 시작해 보자.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의 무릎으로 자녀들을 모아야 한다. 그들이 어리고 미성숙 할 동안 노력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양육해야 할 뿐 아니라, 성년이 되고, 신앙의 궁극적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도 어머니적 보살핌으로 그들을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므로(막10,9),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에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율법 아래에서도 그랬고, 그리스도 오신 후에도 그러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리키지 않았는가 :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자녀들이라고(갈4,26).”¹³⁾

그의 어머니 교회 개념 안에서 우리는 다시 양육의 motive를 발견하게 된다. 양육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장소인 가정의 개념을 사용하여 그는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신자’들이라는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교회는 어머니이며, 신자인 우리는 자녀들이다.

이것은 가정이 자녀를 양육하듯이 교회는 신자를 양육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교회는 서두에 나오는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1장 2절과 3절에 그의 ‘보편 교회’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서 잠시 중단된다. 그는 강요 초판에서 사도 신경의 ‘거룩한 공교회’를 선택받은 자의 총수’(numerus universus praedestinatorum)로 정의함으로써 그의 보편 교회(비가시적 교회)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 보편 교회 개념을 칼빈은 강요 최종판까지 계속해서 그의 교회론 서두에 다루고 있다. 주목할 것은 강요의 초판을 쓸 때 칼빈 ‘보편 교회’ 개념을 그의 교회 개념의 핵심에 놓고 있었으나, 강요 최종판에서는 보편 교회 개념을 여전히 교회론 서두에서 다루면서도 ‘가시적 교회’에 그의 관심이 옮겨온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요 초판을 쓸 때 칼빈은 목회의 경험이 거의 없었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참 교회를 강조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¹⁴⁾ 그러나 나는 1, 2차에 걸친 제네바에서의 목회로 통하여 가시적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면서, 최종판은 거의 가시적 교회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최종판 교회론의 제목에서부터 -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외적 도움 - 그는 가시적인 교회를 지칭하고 있고, 교회론 1장 1절의 서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시적 교회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서두에 붙여서 그는 초판부터 계속 그의 교회론 서두에 다루었던 보편 교회 개념을 언급한(2절과 3절) 후, 4절에서 가시적 교회로 다시 돌아오면서 1절에서 언급하였던 어머니로서의 교회 개념을 등장시킨다:

· “이제 가시적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 해 보자, 나는 앞에서 이미 교회에 ‘어머니’라는 귀한 이름을 붙였는데, 이 이름이 교회를 아는데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 배워야 한다. 이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여 품으시고, 우리를 낳으시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마22,30) 우리를 보호 지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다. 연약한 우리는 일평생 교회라는 학교(schola)에서 떠나는 허락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다.”¹⁵⁾

위의 인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칼빈은 가시적 교회를 ‘어머니’라고 정의함으로써 가시적 교회의 필

13) Institution, IV, 1,1.

14) 참조, 황정욱, 칼빈의 목회, 한국칼빈학회 역, 「칼빈 신학과 목회」, 대한기독교서회, 1999, 259쪽 이하.

15) Institution, IV. 1, 4.



요성이 신자를 잉태하고 양육하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교회가 어머니라는 것은 교회는 신자를 잉태하고 기르며 신자의 평생 동안을 양육하는 기관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어머니 교회의 교육하는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칼빈은 교회를 ‘학교’라고 하였고, 모든 신자들은 그가 어떤 나이에 속하든지 교회라는 학교의 ‘학생’으로 이곳을 떠날 수 없다고 하였다. 교회는 학교이고, 신자인 우리는 학생이며, 우리의 평생의 삶을 교육의 과정이다. 학교와 학생, 평생에 걸친 교육의 과정과 같은 교육적 motive를 통해서 칼빈은 그의 가시적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칼빈의 교회에 관한 정의들 속에서 우리는 칼빈의 교회 개념이 얼마나 강하게 교육적 Motive 위에서 세워지고 있는 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III. 양육하는 교회와 “하나님 교육”(paedagogia Dei)

칼빈은 계속해서 교회의 교육이 인류 전체에게 향하신 하나님 교육(paedagogia Dei)의 일

환임을 밝히고 있다. 1장 5절에서 그는 엡4,10-13절을 제시하면서 연이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일순간에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들이 교회의 교육(paedagogia)을 통하여만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¹⁶⁾ 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교육하시는 것을 반드시 ‘교회’의 교육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하신다고 하였다. 교회의 교육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교육하시는 통로이고, 하나님은 교회의 교육을 움직이는 원인(causa efficiens)인 것이다. 칼빈 교육 연구가인 Hedtke는 칼빈에게서는 “하나님 교육”(paedagogia Dei) 개념이 그의 교육 개념의 기초가 됨을 밝힌 바 있다.¹⁷⁾ “패다고기아 데이”의 개념은 칼빈 스스로 사용한 단어로 특별히 그의 주석서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가리키시고 인도하시는 행위에, 그의 백성을 엄격함과 부드러움으로 다루시는 방법에, 또 그의 백성들의 눈 높이에 맞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가리키시는 방법에 자주 사용하였다.¹⁸⁾

그런데 이 패다고기아 데이를 하나님은 반듯이 인간 교사를 통하여 수행하신다는 것이 여기에서 관건이다. 칼빈은 성서가 그것을 증거 한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리(doctrina)를 가리키게 한 것, 그리고 예언자를 교사(magister)로 세우신 것,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가르침을 주시고, 그 율법을 해석하는 제사장을 교사로 세우신 것들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다.¹⁹⁾ 그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역을 ‘교육’으로 보고, 그에 동참하도록 선택된 사람들을 ‘교사’라고 칭하고 있다. 여기에서 교사란 후에 그의 직분론에 나타나는 좁은 의미의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세운 인간 동역자를 모두 교사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신 모든 역사가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로 인하여 이루어 졌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이 그의 교육을 위한 하나의 통로로 세웠다고 보고 있다: “옛날에 백성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땅의 교사들을 세워서 천사의 직책을 진실하게 수행토록 한 것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를 가리키고자 하신다.”²⁰⁾

이렇게 교사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셔서, 친히 우리를 향하여 우리같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도망할 것이므로 사람인 해석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자신에게 이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피교육자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통로로 교육하시기 위하여 그는 ‘교사’를 선택하는 것이다.

칼빈은 교회의 성직제도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교육의 영역 안에서 보고 있다. 교회 안에 세워진 직

16) Institution, IV, 1, 5.

17) Reinhold Hedtke, Erziehung durch die Kirche bei Calvin, Heidelberg, 1969, p. 33f.

18) 참조. Hedtke, a. a. O., p. 26f.

19) Institution, IV, 1, 5.

20) Ibid.



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교육의 일환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이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운 교사이듯이 교회의 성직도 일차적으로 하나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인 것이다. 물론 칼빈은 교회의 직분론을 전개하면서 보다 세분화된 직분론을 제시하고 각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서술한다. 그러나 칼빈은 그의 성직론을 시작하면서(제3장) 이와 같은 세부적인 설명에 앞서서(1절과 2절) 교회에 세운 성직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의 백성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선택된 ‘교사’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에게서 교회의 교육은 “하나님 교육”이라는 영역 안에서 이해되고 있다. 인간을 통하여 교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교육, 즉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이끌어 가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교육은 철저히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인간 교사를 선택하지만 그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골1,29) 일 할 뿐인 ‘하나님의 동역자’이고(고전 23,9),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인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전달하고 나누어주는 일을 할뿐이다.²¹⁾

“우리는 그가 사람들의 봉사를 이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로 명백하게 선포하신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위임하셨으나 그것은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이양하신 것이 아니고 단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사업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다. 노동자가 일을 할 때에 도구를 쓰는 것과 같다.”²²⁾

이와 같은 칼빈의 “하나님 교육”의 개념으로부터 우리는 칼빈의 사고 안에 자리잡고 있는 교육의 범위와 의미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개혁자 루터의 경우 ‘교육’이란 마치 ‘율법’과 같은 것이어서 ‘구원’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간적 책임에 속하는 일이라고 보았다.²³⁾

그에게도 ‘교육’은 물론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만인 제사장설을 바탕으로 모든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인 성서를 이해해야 할 것이며, 기도교인이란 최소한 자신이 믿는바의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이해하는 신앙’을 추구하면서 그의 전제조건이 되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²⁴⁾ 그러나 루터에게서 교육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책임으로서의 범위 안에서 생각되었다. 교육은 기독교인에게 반드시 필수적 조건이기는 하지만, 교육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결정적인 통로가 되지는 못한다고 보았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일 뿐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루터는 교육과 믿음에도 적용하면서, 교육은 복음보다는 율법에 속하고, 따라서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인간적 책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루터의 사고 안에서는 ‘설교’와 ‘교육’의 이분법적 구조가 나타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이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롬10,17) 전제하에 루터는 들음을 가능케 하는 ‘설교’는 교회의 절대적인 과제가 되지만 이에 비하여 ‘교육’은 이차적 과제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칼빈에게서 우리는 이러한 루터적 이분법과는 전혀 다른 교육에 대한 이해를 발견하게 된다. 칼빈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인도와 가르침 그 자체를 ‘교육’ 즉 ‘하나님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보았고, 구약 시대에 그가 세우신 예언자나 제사장들이 하나님 교육을 위하여 선택된 ‘교사’인 것처럼, 또한 교회를 세우신 것도, 교회 안에 세운 직분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게 한 것도 ‘하나님의 교육’의 일환

21) Institution, IV, 1, 6;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성을 조명하고 심정을 새롭게 하는 것은 자기가하는 일이라고 하시면 사람이 이 두가지 일의 일부라도 자기의 공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경고하신다.(ibid).

22) Institution, IV. 3, 1.

23) I. Asheim, Glaube und Erziehung bei Luther, Heidelberg, 1961.

24) 그로 더불어 독일에서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이 출발하였고, 새로운 교육의 운동이 시작되었다. 참조, Fr. Schweitzer, Religionspädagogik, Muenchen, 1991, 16쪽 이하.



이다. 오히려 칼빈에게서는 ‘하나님 교육’이라는 카테고리안에 ‘설교’와 ‘세례’와 ‘성만찬’ 더 나아가 교회의 “권징”(disciplina)등 모든 교회의 삶의 형식들이 포함된다. 칼빈의 사고 구조 안에서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 교육”의 기관이고, 그것이 설교이든 세례든 성만찬이나 권징이든, 교회 안에서 수행되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신자들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끄는 교육의 통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설교는 믿음을 가져오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이요, 교육은 인간적 책임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지 않았다. 설교뿐 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가리키시는 하나님 교육이고, 그런 한에서 그것들은 ‘인간적 책임’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성령이 주체가 되고 이끄시는 일에 대하여 인간은 도구로서 참여할 뿐인 것이다. 그에게서 ‘교육’의 개념은 언제나 “하나님 교육”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IV. 성례전과 “하나님의 눈 높이 교육”(accommodation Dei)

칼빈의 하나님 교육을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자기조절”(accommodation Dei), 즉 피교육자인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 자신을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눈 높이 교육’이다. 이미 칼빈은 강요서문에서 “우리는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직 천사들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능력과 눈 높이에 맞게 자신을 조절하시는(accommodiert)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머나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셨다.”(Institution IV, 1,1.)고 하였다. Hedtke도 자신을 조절하여 약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눈 높이 교육이야말로 그의 패다고기아 데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였다.²⁵⁾ 칼빈에게서는 이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 그리고 인간 교사를 세우시고 그의 백성을 가리키시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자신을 조절하여 다가가시는 그의 눈 높이 교육이다. 이것은 교회의 여러 세부적인 삶의 표현들에서도 확인되는데, 특별히 ‘성례전’(sacrament)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칼빈은 성례를 먼저 “우리의 믿음을 돕는 또 하나의 수단”(Institution, IV, 14, 1)이라고 정의하여서, 성례가 교회가 갖는 양육적 사명의 일환임을 밝히고 있다.²⁶⁾ 성례는 교회의 본질적 과제가 그러하듯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통로”가 되며, 그를 통해서 우리의 약한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⁷⁾ 이어서 그는 하나님이 성례를 제정하신 것이야말로 그의 “아콤모다찌오 데이”의 방법인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 자체만으로 확고 부동하며, 자체 이외에서 더 훌륭한 확인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각종 수단을 사용하여 사방으로 괴어 주고 받쳐 주지 않으면 떨리고 흔들리며 비틀거리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우리의 주께서 우리의 능력에 자신을 적응시키시며(accommodiert), 우리가 항상 땅에 붙어 기어다니고 육에 붙어 있으면서 영적인 일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이런 땅에 붙은 것까지 이용해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인도하시며, 육에 있는 우리 앞에 영적인 복의 거울을 두신다. 크리스소스톰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무형의 존재라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을 무형한 형태로 주셨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신체에 접붙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것 속에 넣어 주신다.”²⁸⁾

25) Hedtke, a. a. O., p. 33f.

26) 칼빈은 그의 교회론 앞부분에서 먼저 성례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성례의 성서적 집전”은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나란히 교회를 특징짓는 두 표지(notae ecclesiae)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다른 개혁자들과 입장을 같이하여 교회의 표지를 제시하고, 뒷부분의 성례론에서 본격적으로 성례에 대한 입장을 전개한다.

27) “나는 주께서 그것을(성례전) 제창하신 목적이 믿음을 확립하고 증진하는 데 있었다고 생각한다.”(Institution, IV. 14, 9)



이처럼 칼빈은 성례란 인간이 육체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 특성에 맞게, 물질적인 것으로(떡과 포도주, 물세례) 가리키시는 하나님의 눈 높이 교육이라고 하였다. 성례에 사용되는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일종의 유추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인도된다.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으로서 떡을 받을 때 우리는 곧 이 비교되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곧, 떡이 우리의 신체에 영양과 생명을 주어 신체를 유지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영혼에 힘과 생명을 주는 유일한 양식이라는 것이다. 피의 상징으로서 포도주가 제시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포도주가 신체에 주는 유익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비슷한 영적 유익을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institutio IV. 17, 3) 특별히 그는 성례와 말씀이 내적 연관성을 지적하면서 성례는 “보이는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림에 그리듯이 분명한 형상으로 그러서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institutio, IV, 14, 7)

성례(sacrament)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이 확실하게 믿도록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표징이라고 보았을 때, 칼빈은 성례를 넓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institutio IV, 14, 18) 성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인간의 눈 높이로, 즉 자연물이나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보여주신 예를 수없이 확인할 수 있고, 이것들은 넓은 의미로 모두 성례였다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의 보증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생명 나무”나 노아에게 보여주신 “무지개”, 기드온에게 승리의 약속을 나타내셨던 “양털”, 히스기야에게 회복을 약속하셨던 “해 그림자” 등 이 모두 인간의 미약한 믿음을 지탱하며 강화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성례였고 그런 의미에서 “아콤모다찌오 데이”였던 것이다.(ibid) 칼빈은 더 나아가 자연물 뿐 만 아니라 할례와 결례, 희생제와 다른 여러 의식들(레 1-10장)도 유대인들의 성례였다고 하였다.²⁹⁾ 그러한 상징들은 단순히 우리의 이해 수준에 맞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표징이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교육적 의미를 갖는 의식이었다. 그러한 표징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경건하고 순결하고 충성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성례는 의식이며, 동시에 훈련이었다.³⁰⁾

물론 칼빈은 그러한 구약성서의 성례들은 모두 은혜와 구원의 증거로서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³¹⁾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것들은 폐지되었고,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두 가지 성례가 제정되었다. 그래서 칼빈은 옛 계약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동기’(pueris)에 해당된다고 하였다.³²⁾ 그들을 교육하셨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킬 몽학선생, 즉 율법을 주셨고, 자연이나 기적과 같은 유아적 방법으로 교육하셨고

28) Institution, IV,14, 3.

29) institutio, IV, 14, 20.

30)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성례를 의식이라고 부르며, 그 의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훈련시키고자 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우선은 그들 안에 믿음이 배양되고 고무되며 강화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종교를 증거 하도록 훈련시키신다고 하는 것은 옳은 말이다.(institutio, IV, 14, 19)

31) “저 고대의 성례들은 현대의 성례전들과 똑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즉,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고, 손을 잡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거나 또는 형상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institutio, IV, 14, 20)

32) OSIII, 328. II. 7,2; CR, 24, 404(출25,8); 참조, Hedtke, a. a. O., p. 13.



하였다. 그러나 새 계약의 백성은 아동기보다는 성숙한 청소년기에 비유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연물이나 기적과 같은 것을 통하여가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례전을 통하여 교육하신다는 것이다.³³⁾ 그러한 눈으로 보았을 때 성서는 신구약 성서 전체로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대한 눈 높이 교육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에게서 하나님 교육(paedagogia dei)이 하나님에 의한 교육이듯이 그의 일환인 아콥 모다찌오 데이로서의 성례는 반듯이 성령에 의하여 인도되는 것이어야 한다. 성례가 그 임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우리들의 신앙을 더 굳게 하기 위하여서는 반듯이 ‘성령’이 함께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례가 그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반듯이 내적 교사인(interior ille magister) 성령께서 오셔야 한다. 성령의 힘이 아니면 마음속에 침투하고 감정을 움직이며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성례가 들어오게 할 수 없다.”³⁴⁾

V. 권징(disciplina)의 전인 교육적 의미

칼빈의 교회가 양육을 그 핵심으로 하는 교회라고 하는 점은 “권징”(disciplina) 개념에서도 새롭게 확인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칼빈은 루터와 멜랑히톤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조에서 제시한 대로 교회의 두 표지를(notae ecclesiae) 말씀 선포와 성례전이라고 하였다.(Institutio IV, 1, 9) O. Weber는 만약 칼빈에게서 세 번째 교회의 표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권징”(disciplina)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³⁵⁾ 권징은 칼빈의 교회론 안에서 특별히 교인들의 삶을 지도, 감독하는 기능인데, 루터나 멜랑히톤의 교회 개념 안에는 없는 칼빈적 교회의 특징이다.

칼빈은 권징(disciplina)을 가리켜 “열쇠의 권한과 영적 재판권에 의존한다”(Institution, IV,12,1)고 하였고, 이를 주로 견책과 출교라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권징은 대체적으로 교회의 견책 기능으로 생각되어 왔고, 우리말에서도 권징이나 치리와 같은 단어로 번역되고 있다. 그러나 “디시플리나(disciplina)”라는 라틴어 단어는 ‘훈육’, ‘훈련’을 의미하는 교육적 용어이고³⁶⁾, 실제로 칼빈은 교인의 삶 전반을 교회가 동반하고 교육한다는 의미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권징을 다루고 있는 12장 1절을 디시플리나와 ‘가르침’을 의미하는 “독트리나(doctrina)”를 나란히 놓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르침(doctrina)이 교회의 영혼이라면, 권징(disciplina)은 교회의 힘줄이다.”

Hedtke는 칼빈의 신학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은 아마도 “doctrina”일 것이라고 하였다.³⁷⁾ 물론 칼빈은 강요에서 독트리나를 디시플리나처럼 한 장으로 따로 떼어서 취급하고 있지는 않다. 독트리나는 때때로 ‘가르침’으로, 또 때때로 가르침의 내용이 되는 ‘교리’로, 또 때때로 ‘교훈’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이다. 칼빈은 성서를 가리켜서 “하늘의 교리”(doctrina)

라고 하였고, 복음을 가리켜 “예수님의 구원의 가르침”(doctrina)이라고도 하였으며, 교부들의 가르침에도 독트리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설교와(IV, 12,2) 모든 교회의 가르침에 폭넓게 독트리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성례가 표징이라면, 그 표징은 반듯이 믿음을 일으키는 복음의 선포가 함께 동반

33) OS III, 435, II, 13; CR, 50, 224ff(갈 4,1); 참조, 양금희, 「종교개혁의 교육사상」, 한국 장로교출판사, 1999, 114쪽 이하.

34) Institution, IV, 14, 9.

35) O. Weber, "Calvins Lehre von der Kirche", O. Weber,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Neukirchen 1968, p. 28.

36) 독일어권에서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을 살려서 훈련, 혹은 양육의 의미를 갖는 “Zucht”라고 번역하고 있다.

37) Hedtke, a. a. O.



되어야 하는데, 이때에도 칼빈은 표징과 ‘교훈’(doctrina)은 서로 분리시킬 수 없다 “고 하였다.(IV, 14,4) 따라서 칼빈에게 독트리나는 교회의 표징인 말씀 선포와 성례에 함께 포함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가르침에 함께 있는 단어이다. 칼빈이 독트리나를 한 장으로 따로 취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그의 교회론 전체에서 독트리나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게서 독트리나는 교회의 “기초요 반석” 이 라고 하였다.³⁸⁾

칼빈은 디시플리나를 이 독트리나와 나란히 놓고 보면서 독트리나가 인지적인 가르침이라면 디시플리나는 그를 삶으로 실천하는 가르침으로써 독트리나를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교리(doctrina)를 전하기만 하고, 사적인 충고와 시정과 기타 보조 수단을 첨가해서 교리를 지탱하며 실천하게 하지 않는다면 각 사람이 제멋대로 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디시플리나는 그리스도의 교훈(독트리나)에 반대해서 날 뛰는 사람들을 억제하며 길들이는 굴레와 같으며, 나태한 사람을 고무하는 박차와 같고, 더 중한 타락에 빠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영의 율화함으로써 부드럽게 징벌하는 아버지의 매와 같다.”³⁹⁾

그래서 디시플리나는 교회가 신자들에게 말씀(혹은 가르침)을 삶과 연결시키는 교회의 생활지도였다. 교회는 단순히 교리를 가리키거나 지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인이 그 의무를 기꺼이 다하지 않거나 불손한 행동을 하거나 점잖지 못한 생활을 하거나 비난받을 행동을 했을 때에”(IV.12,2) 기꺼이 충고해야 하고, “설교와 일반적 교훈으로 충분한 성과가 없을 때에 각 가정에 다니면서 충고하고 경고” 하는 과제를 가졌는데, 그것이 디시플리나이다. 따라서 디시플리나가 있을 때에 “목사의 교훈(독트리나)에 힘과 권위가 있다.” 그렇게 볼 때 디시플리나는 말씀 선포와 성례가 바른 기능을 담당하도록 보조하는 기능을 하고, 독트리나의 이론적 교육을 실천적 교육으로 보완하는 교회의 전인 교육적 차원의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디시플리나는 근본적으로 기독교인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에 있었다. 독트리나에서 칼빈을 열쇠의 권한을 바탕으로 수찬정지와 출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의 목적은 삶을 교정하는 것에 있었다. 최악의 경우 교회가 출교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목적은 죄인을 교정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출교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하였다.⁴⁰⁾ 칼빈은

디시플리나가 교회의 생활 지도인 만큼 그 대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엄격함과 온유함을 겸해야 하고, “고치려고 하다가 도리어 죽일 수 있다” 는 점을 염두에 두어 온화한 방침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칼빈이 디시플리나의 이름 아래서(12장) 출교나 수찬 정지 뿐 만 아니라 금식과 기도, 회개 등에 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도 디시플리나가 기독교인의로서의 삶에 관한 생활 지도라고 하는 점을 나타내 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디시플리나는 또한 ‘공동체적 교육’의 차원에서 의미를 지닌다. 칼빈은 디시플리나의 목적을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잘못된 삶을 사는 자에게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앗는 것이다. 그것은

38) CR 48, 57(행 2,42); 참조, K. Reuter, Das Grundverständnis der Theologie Calvins, 1. Teil, Neukirchen, 1963, p. 86f.

39) Institution, IV. 12. 1.

40) “출교도 벌을 주는 것이지만 장차 정죄를 받으리란 것을 미리 경고함으로써 사람을 불러 돌이켜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가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화해와 교제의 회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 우리는 온갖 수단을 다해서 그들을 바른 생활로 돌이키며 교회에 돌아와서 함께 연합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해야 한다.”(Institution, IV, 12,10); “출교하는 목적은 죄인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자는 것이며, 신자들 사이에서 나쁜 예를 제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이 훼손을 받지않고 다른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 본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Institution, IV, 12,8)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썩는 지체에 의해서 부패되지 않게 함이다. 둘째, 선한 지체가 악한 지체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 잘못된 자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IV, 12,5) 이처럼 칼빈이 제시하는 디시플리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움으로써 모든 신자들이 바른 길을 걷도록 하는 데에 있다. 그래서 칼빈은 디시플리나에 대한 책임이 우선은 교회 전체에 있다고 하였다. “모든 사람이 형제에 대하여 충고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한 모든 사람이 “충고를 받을 용의가 있어야 한다”.(IV, 12,2) 그는 고대 교회의 예를 들면서, 한 사람에 대한 치리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수찬이 금지되고, 교회 앞에서 회개한 증거를 보이도록 했을 뿐 만 아니라, 그가 개선의 표시를 보일 때, 회중 앞에서 안수함으로써 그를 다시 회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성직자들이 치리를 하고 다시 화목을 선포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교회원들의 찬성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IV, 12,6) 교회의 재판권이 발휘되어야 하는 출교와 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되고, 장로회(consensus Seniorum)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이것을 교회 전체가 찬동해야 한다고 하였다.(IV, 12,7) 이것은 교회 전체가 그 지체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의 개선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칼빈의 “디시플리나”는 무엇보다 먼저 교회의 교육이 단순히 말씀과 교리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과 연결시키는 전인성을 지향해야 함을 우리에게 시사해 준다. 더 나아가 디시플리나는 교회 자체가 교육의 주체임을 밝혀주며, 교회 공동체 전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리켜 준다.

IV. 맺는 말 : 칼빈의 교회론에 나타난 교육 개념의 현대적 함의

칼빈의 교회론에는 ‘교육’의 개념이 그 핵심에 서 있다. 교육은 그가 제시하는 교회의 필요성과 정의에, 교회의 성직자의 개념에, 교회의 표지인 말씀과 성례전에, 그리고 디시플리나의 개념 안에 언제나 핵심적인 Motive가 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의 교회가 신자들의 평생의 과제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돕기 위한 외적 도움이자 수단”으로서 신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 만큼 그 안에서 수행되는 모든 것들은 교육, 즉 하나님 교육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수행되는 넓은 의미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칼빈의 교육적 개념 안에서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교육에서 말하는 “교육목회”의 착점을 읽을 수 있다. 교육목회는 18세기 말 ‘주일학교 운동’과 더불어 시작되어 우리나라 안에도 영향을 크게 미친 교회의 교육적 추세, 즉 ‘교육’을 어린이나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면서, ‘교회 학교’ 안에 국한시켜 보는 학교식 모델(schooling model)의 교회 교육을 지양하고, 교육을 목회 전체로 확대하여 생각하고 접근하고자 하는 운동이자 개념이다.⁴¹⁾ 교육 목회 개념 안에서는 교육의 대상이 어린이와 청소년만이 아니라 교인 전체로 확대되며, ‘교육’의 범위는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활동’만이 아니라 목회의 전 영역에서 신자들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기독교적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목회 전 영역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교육 목회는 전 교인을 교육의 대상으로 그들의 신앙 성장을 교육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려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목회의 모든 영역, 즉 말씀 선포와 예배, 친교, 봉사들이 갖는 교육적 의미를 중시하고 이를 합목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 영역에서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와 같은 현대의 교육 목회 개념은 그러나 위에 살펴본 칼빈의 교회론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칼빈에게서 인간은 이미 그의 신학적 인간 이해에 근거하여 평생 동안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학생들이며, 평생 성화의 과정에서 서서 성장하는 과정적 존재들이다. 교회는 그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일 때 뿐 만 아니라, 그들이 인간의 옷을 입고 사는 한 평생 동안 양

41) M. Harris,



육하고 성숙시킬 의무가 있는 양육하는 기관이다. 칼빈에게서 교회는 “하나님 교육”의 기관으로 세워지고, 인간 교사들에 의해 신자들의 눈 높이에 맞게 가르침과 성례와 세례와 삶의 지도까지 행하여지는 교육 목회의 장소이다. 우리는 칼빈의 이와 같은 사고로부터, 교회 교육의 범위와, 교육의 주체, 교육의 대상과 교육의 과정, 그리고 교육의 내용에 대한 개혁 교회적 통찰을 얻게 된다.

칼빈의 교회론에서 우리가 얻는 또 다른 통찰은 칼빈 스스로가 풍부한 교육적 용어들과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교회와 인간과 성서의 사건들과 성례들에 대한 통찰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의 모티브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해명을 제시하였고, “하나님 교육”(Paedagogia Dei) 개념 안에서 성서와 성령을 ‘교사’로 보았으며, 제사장과 예언자를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사로 보았고, 그와의 연결선 상에서 교회와 성직자를 보았으며, 성직자의 ‘도구됨’과 성령의 역사의 관계를 보았다. “하나님의 눈 높이 교육”(Accommodatio Dei) 개념 안에서 칼빈은 구약성서에 나타난 사건들, 노아의 무지개와 기드온의 양털,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해 그림자들을 새로운 안목으로 보았고, 성찬과 세례를 표징과 언약의 관계로 보는 안목을 얻고 있다. 물론 ‘교육’적 안목이 칼빈이 그의 신학적 용어를 설명하는 유일한 틀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하는 것은 칼빈에게서 교육적 용어와 이미지, 교육적인 붐의 방식들이 그의 신학적 주제들을 숙고하고 그를 보다 풍성히 해명하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교육 신학’이 ‘교육’의 관점에서 신학적 주제들을 숙고하면서, 동시에 신학적 관점에서 교육의 현상을 설명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시도를 하는 현대적 기독교 교육학의 한 영역이라면, 우리는 이미 칼빈에게서 그와 같은 시도를 하는 현대적 기독교 교육학의 한 영역이라면, 우리는 이미 칼빈에게서 그와 같은 시도를 확인하게 된다.

칼빈은 물론 기독교 교육학자는 아니었다. 기독교 교육에 관한 특별한 저술을 남기지도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자 칼빈의 신학적 저술 한 가운데에서 오늘날의 기독교 교육에 방향을 제시하는 근본적인 통찰들을 발견한다. 서두에서 인용한 Osmar의 말대로 개혁 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전통과 개혁을 서로 접목시키는 과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칼빈이 단지 개혁 교회의 아버지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사고에 나타나는 시대를 넘어서서 설득력을 갖는 초시대성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사고에 나타나는 시대를 넘어서서 설득력을 갖는 초시대성 때문이라는 것을 그의 교회론에 나타난 교육적 의미 찾기에서도 다시금 발견하게 된다.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